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최희섭

나지완

장성호

KIA '붙박이 4번' 찾아라

"공포(空砲)의 4번 타자, 공포(恐怖)의 중심타자로 거듭나라."
치욕의 6연패를 당한 지난 13일까지 KIA 타이거즈의 '클린업 맨' 4번 타자가 기록한 타율은 49타수 8안타로 0.163에 불과하다.

확실한 거포 없어 타순 바꾸기 일쑤

4번 타율 0.163 '빈타'…6연패 초래

최희섭·나지완·정성호 방망이 회복 기대

타선의 중심인 4번타자가 만든 타점은 9점인 반면, 삼진으로 맥없이 돌아선 경우는 8번이나 된다. 홈런은 달랑 한개. 7경기에서는 아예 안타가 터지지 않았다.

4번 타자의 극심한 부진은 곧 팀의 6연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이어졌다.

KIA는 15일 현재 13경기에서 37득점으로 8개 구단 팀 득점률에서 최하위다. 득점 1위인 롯데 자이언츠의 78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롯데의 신바람에는 4번 타자 이대호가 버티고 있다. 타율 0.327의 이대호는 팀에 16점을 안겨주며 타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홈런은 3개로 팀의 5번타자 가르시아(홈런 4)와 홈런 경쟁을 벌이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KIA는 아직 마땅한 붙박이 4번 타자를 찾지 못하고 이 선수, 저 선수 시험만 하고 있다.

시범경기 전 경기에 4번타자로 맹활약을 했던 신인 나지완은 장성호, 최희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지난달 29일 개막전 4번 타자로 출전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나지완은 기대와 달리 2경기에서 한 번도 1루 베이스를 밟지 못했다.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올린 게 전부였다.

결국 1일 최희섭이 4번타자로 긴급 투입됐지만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바로 다음날 장성호에게 4번 자리를 넘겨줬다.

최희섭은 4번 타자로 이름을 올린 3경기에서 단 한개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하고 삼진은 5개나 당했다.

장성호는 7경기에서 26타수 7안타로 7타점을 올리며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결정적인 찬스에 팀의 승리를 뒷받침 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진 못했다.

최희섭이 타격 부진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된 지난 13일에는 이재주가 4번을 꿰차며 4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하지만 5회 1사 1·3루에서 당한 삼진과 7회 무사 1·2루에서 1루수 플라이로 물러나 1점차 승부를 뒤집는 화끈한 한 방을 보이지 못해 팀은 6연패에 빠졌다.

이처럼 중심타선이 좀처럼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KIA는 지난 롯데와의 3연전에서 잔루를 31개나 남기며 '잔루 타이거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었다.

팀 타선의 핵인 4번타자가 13경기가 끝나도록 정해지지 않고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KIA로서는 위기를 해결할 한 방이 아쉽다.

루상에 주자를 모아 놓고도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맥없이 물러나는 4번타자는 상대편의 사기를 올려 줄 뿐 아니라 팀 분위기 마저 떨어뜨린다. KIA의 부진이 초반 일시적인 슬럼프로 끝나기 위해선 힘있는 4번 타자의 한 방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육상 꿈나무들 힘찬 출발 15일 충남 당진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제10회 전국 꿈나무 선발 육상경기대회 겸 제8회 주니어 육상경기대회에서 남중 1학년 예선 100M 경기 4-2조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린보이' 올림픽 향한 시동

박태환 동아수영 자유형 200m·400m 출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메달을 노리고 있는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사진)이 17일부터 닷새 동안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지는 제80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출전하는 종목은 자유형 200m와 400m. 주종목 가운데 하나인 자유형 1,500m의 경우 아직 지구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 박태환은 지난달 제주 한라배수영대회에 출전한 뒤 태릉선수촌에서 한 달여 기량을 더 가다듬었다. 대회 둘째날인 18일 오후에 펼쳐지는 자유형 400m에서 첫 선을 보인다. 박태환이 국내 대회에서 자유형 400m를 뛰는 건 2005년 10월 울산 전국체전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이 종목 최고 기록은 3분44초30의 아시아기록. 작년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작성한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메달 경쟁자들이 잇따라 좋은 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태환도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박태환은 지난해 이 종목 랭킹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랜트 해켓(호주)이 3분43초15를 찍으며 박태환을 넘어섰고, 에릭 벤트(3분44초56·미국)와 장린(3분45초04·중국), 유리 프릴루코프(3분45초10·러시아), 마시밀리아노 로솔리노(3분45초19·이탈리아) 등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20일 오후에는 자유형 200m에 나선다. 이 종목에서도 박태환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며 작성한 1분46초73으로 아시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라배에서 자신의 기록 단축에 실패하고 크게 아쉬워했던 만큼 선전이 기대된다. 올해 이 종목 랭킹을 보면 마이클 펠프스가 1분45초71로 선두에 올라있고, 파울 비더만(1분46초59·독일), 패트릭 머피(1분46초67·호주), 그랜트 해켓(1분46초68) 등의 순이다. 이들을 넘어서야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기록 단축은 절실한 상황.

박태환과 함께 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꼽히는 정슬기(20·연세대)는 주종목인 평영 100m(19일)와 200m(20일)에 나선다. 꾸준한 성실함으로 훈련에 매진해 온 만큼 다시 한번 한국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슬기가 보유한 평영 100m는 한국 기록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테스트이벤트에서 작성한 1분09초30이고, 평영 200m의 경우 작년 하계유니버시아드(태국 방콕)에서 세운 2분24초67이다. /연합뉴스'

문체부, 체육회 사무총장 승인 거부

문체부 "체육행정 경험 부족"

체육회 25일 긴급이사회 소집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신임 사무총장에 대한 임원 승인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체육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14일 저녁 전자문서를 통해 '체육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임원 구안숙은 스포츠 현장은 물론 체육행정 경험이 전무해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동안 베이징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 및 체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문체부의 승인 거부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체육회는 지난 3월5일 이사회에서 금융전문가 출신인 구안숙씨를 만장일치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추대했지만 문체부는 3월17일 체육회 본부장들을 불러 "구안숙 내정자는 실체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승인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임원 선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체육회에서 임원을 교체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문체부는 승인 요청서를 받은 지 39일만에 최종 불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문체부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은 체육회는 15일 오전 김정길 회장 주재로 본부장 이상 집행부 회의를 열고 장시간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일단 25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임원 승인을 거부했지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한 만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진퇴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체육회 역사상 사무총장을 정부가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문체부는 신임 사무총장의 체육행정 경험이 없는 점을 문제삼았는 데 역대 사무총장들이 모두 체육행정가들만 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체부와 체육회가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을 벌임에 따라 4개월도 채 남지않은 베이징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택 세계 랭킹 47위

지난주보다 2계단 올라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47위에 올랐다.

이형택은 ATP가 15일(이하 한국 시간) 발표한 순위에서 지난 주 49위에서 두 계단 오른 47위에 자리했다. 지난 해 8월 36위까지 올라 개인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이형택은 한때 50위 밖으로 밀려났다가 3월25일 자 순위부터 다시 50위 내로 진입했다. 지난 주 투어 대회가 열리지 않은 탓에 1위 로저 페더러(스위스)부터 12위까지 순위 변화는 없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랭킹에서는 지난 주 4,5위를 달렸던 스베틀라나 쿠즈네초바와 마리아 샤라포바(이상 러시아)가 한 계단씩 올라 3,4위에 자리했다. 쥐스틴 에넹(벨기에)이 1위를 지켰고 3위였던 엘레나 얀코비치(세르비아)가 5위로 내려 앉았다.

"이승엽 본 모습 보고 싶다"

하라 감독 아쉬움 밝혀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이승엽(32)에 대한 실망과 재기에 대한 기대를 함께 드러냈다. 일본 석간 후지는 15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승엽의 1군 등록 말소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의 이승엽은 이승엽이 아니다. 나는 '이승엽'을 보고 싶다"는 하라 감독의 언급을 함께 실었다.

이승엽은 개막 후 14경기에서 타율 0.135(52타수7안타), 2타점에 그쳤고, 단 1개의 홈런도 치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부진에 시달린 끝에 14일 2군으로 내려갔다. 하라 감독은 "참고 기다렸지만 이승엽의 본 모습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계속 기용하는 건)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승엽이 2군으로 내려가면서 자리가 빈 1루수는 루이스 곤살레스(29.베네수엘라)가 맡게 됐다. /연합뉴스

맨유 프리미어리그 2연패 '한발 더 가까이'

첼시, 위건전 비겨 자력 우승 불가능

박지성(27)이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회 연속 우승에 한발 더 다가섰다. 맨유를 쫓던 2위 첼시가 승점 1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자력 우승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첼시는 15일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위건 애슬레틱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시종 주도권을 잡고도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후반 10분 마이클 에시엔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인저리타임 에밀 헤스키에게 뼈아픈 실점을 했다. 갈길 바쁜 첼시는 경기 직전 미드필더 프랭크 램퍼드가 개인사정으로 출전 명단에서 빠지고, 주포 디디에 드로그바마저 무릎 부상으로 뛰지 못하면서 결국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처했던 위건에 발목을 잡혔다.

첼시는 팀당 4경기씩을 남겨 놓은 현재 22승9무3패(승점 75)로 맨유(25승5무4패.승점 80)와 격차가 5점으로 벌어져 우승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 /연합뉴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상담문의 (062)351-0095